

# 광주은행 지역밀착·포용금융 강화...100년 은행 도약

송중욱 은행장 주재 '4분기 경영전략회의'

### 자산 건전성 관리·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 중점 전략 제시 "사회공헌·중기 지원 등 지역 대표은행 역할 최선 다할 것"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광주은행이 '2022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밀착경영과 포용금융 강화 전략을 다졌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 주재로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3분기 우수 성과를 거둔 직원을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 영업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자산관리(PB)와 적립식 예금, 전략대출, 카드, 펀드 등 각 부문에서 영업 전략을 공유하고 영업력 강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

회의에 앞서 광주은행은 최장범 PWC컨설팅 상무를 초청해 '인공지능(AI) + RPA 시너지'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은행이 지난 2020년 8월 인수한 베트남 증권사(JBSV) 직원들이 본점을 찾아 영업 현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4분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으로 ▲핵심예금 증대 통한 영업력 강화 ▲지역 중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포용금융 실천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비대면 채널 활성화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PB 영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는 ▲핵심예금 및 비이자부담 경쟁력 강화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지역별 영업환경에 최적화된 채널 전략 추진 ▲디지털 금융자산 증대와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해외 자회사와 시너지 강화를 위해 JBSV 성장 적극 지원 등이 올랐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 취임 후 매년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인 당기순이익 1965억원 달성에 이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인 129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영성과 외에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시상식에서 지방은행 부문 5년 연속 1위를 수상하고 2년 연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선정 지역 재투자 평가 '최우수' 등급에 뽑히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4분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송중욱 은행장이 지역 밀착경영과 포용금융 강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발 빠른 금융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총 81억6000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에 총 47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올해만 광주시와 광산·동·서·북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3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지금까지 지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총 105억7500만원 규모이다.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출 지원은 지난달 말 기준 3만3742건, 1조4699억원에 이른다.

송 은행장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올해 두 번 단행됐고 금융의 디지털화, 침체된 경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광주은행은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탄탄한 기초체력을 키워왔다"며 "이제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타이틀을 넘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서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지와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실행하는 도전 정신으로 2022년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둬 다가오는 새로운 해를 준비하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하며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숙명을 명심하고 금융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협 광주유통센터, 농산물 판매 비중 절반도 안된다

8월 말 358억원...전체 41.5% 불과

농협 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광주·전남 하나로마트와 유통센터 3곳의 지난해 농축수산물 매출이 전년보다 18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목포유통센터와 광주유통센터는 올해 매출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줄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하나로유통 직영 매장 3곳의 지난해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978억 7300만원으로, 전년(996억9700만원)보다 18억 2400만원(-1.8%) 감소했다.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남악점과 목포유통센터, 광주유통센터 등 3곳이 있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농협 광주유통센터의

지난해 농축수산물 매출은 558억5600만원으로, 전년(588억2500만원)보다 29억6900만원(-5.0%)이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나로마트 남악점의 농축수산물 매출은 지난 2020년 84억8700만원에서 2021년 82억4200만원으로, 1년 새 2억 4500만원(-2.9%) 줄었다.

반면 목포유통센터는 323억8500만원에서 337억7500만원으로, 매출이 13억9000만원(4.3%) 증가했다.

광주유통센터와 목포유통센터의 올해 매출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유통센터의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매출은 863억1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비중은 41.5%에 불과한 358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전년(42.2%)보다 감소한 수치다.

전국 12개 센터의 평균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은 49.6%로, 광주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목포유통센터의 농축수산물 비중은 지난해 52.9%였지만, 올해 51.3%(423억원 중 217억원)로 내려갔다.

하나로마트 남악점(65.8%)을 포함한 광주·전남 점포 3곳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은 올해 46.1%로, 전년(46.9%)보다 감소했다. 최근 5년여 동안(2017년~2022년 8월) 이들 점포 3곳의 농축수산물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1조 2239억원 중 5566억원)으로, 판매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신정훈 의원은 "하나로마트와 농수산종합유통센터에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을 법으로 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으로써 갖는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주거안정에 최선"

정기집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취임

정기집<사진> 고운주택 회장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4일 제11차 정기총회에서 1100여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정기집 회장이 신임회장에 추대,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30대 초반 주택건설 업계에 입문한 이후 지역 주택건설 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회장 등 협회발전

에 기여했다. 이밖에 광주과학기술원 총동창회장과 발전재단 이사, 기술경영아카데미 총동문회장,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창회장 등 지역사회에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특히 자사의 주택전시관 개관행사 때마다 축하 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받아 해당 지역 소외 계층에게 꾸준히 전달, 사랑의 연탄나눔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지역인재 양성기금 후원,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주거개선사업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기집 신임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전국 어느 지역보다 '주택사업하기 좋은 광주·전남'을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 주택건설사가 앞으로도 국내 민간주택시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품질 개선을 위해 회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주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건설사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제침체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사들을 결속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고령 농가 집 고쳐드려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지난 21일 삼도농협을 시작으로

25일 임곡농협, 28일 분량농협에 소속된 고령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농업인 행복콜센터가 받은 주거환경 개선 요청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NH 현장봉사단이 사전 답사를 한 뒤 NH네트웍

스가 해당 농가를 찾아 오래된 집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성신 광주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촌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취약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민 생활 밀착형 맞춤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36.16 (+23.80)
▲ 코스닥	688.50 (+11.77)
▼ 금리(국고채 3년)	4.305 (-0.190)
▼ 환율(USD)	1439.70 (-0.1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